

# 제주지역 노인의 여가활동 조사연구\*

: 여가활동 유형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김진영\*\* · 김남진\*\*\*

<차례>

- I. 서론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 2. 측정도구
  - 3. 조사 및 자료 분석
- III. 분석 결과
  - 1. 여가활동 유형
  - 2. 여가 만족도
  - 3. 여가활동 욕구 및 여가활성화를 위한 요구
-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지역인 제주도는 이미 1996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고령화 인구의 비율 및 고령화 속도가 타 시도에 비해 빠른 편이다. 현대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은 젊은 세대들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 여가를 노인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공급자 중심으로 획일적이었던 복지정책이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필요성

\* 이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김진영·김남진(2008)의 자료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담고 있는 제주형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책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437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하여 그들의 여가활동 유형, 여가 만족도 그리고 여가활동 욕구에 대해 살펴봤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노인들은 주로 남는 시간을 보낼 목적으로 텔레비전과 신문 등을 보는 단순소일형에 해당하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

둘째, 제주지역 노인들이 인식하는 여가 만족도는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휴식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심리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다.

셋째, 제주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건강과 관련된 여가활동에 가장 참여하고 싶어 하며 정책적으로는 여가활동과 건강검진을 병행할 것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같은 조사 결과의 함의는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여가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 노인관련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의 유기적 조정 및 연계, 노인특성이 반영된 여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

주제어 : 노인 여가, 여가활동 유형, 여가 만족도, 여가활동 욕구

## I. 서론

지난 1996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0%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제주사회의 2008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7월 1일 기준, 63,080명)는 전체 인구의 11.6%(남 8.5%, 여 14.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

율은 전년 11.1%에 비해 0.5% 증가한 것이며 10년 전인 1998년 7.8%에 비해 무려 3.8%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비율은 2015년에 이르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그리고 2025년이면 20.1%로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8;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2009).

제주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의 타 시·도와 비교할 때 2~3년 이상이나 빠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80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고령층 인구 구성 비율 역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진영, 2006). 이같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노령화지수를 통해서도 잘 확인된다. 1998년 32.7이던 것이 2008년 58.0, 2017년에는 103.7로 급격히 증가하여 노인 인구가 유년 인구(0~14세)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2008).

고령화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늙어감에 따라 영향 받게 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과정의 총체로 규정되는 바, 인구구성의 변화와 고령화 현상은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위생시설의 개선, 영양수준의 향상, 보건 및 의료기술의 발달 등이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평균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에 의한 가족규모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다(Giddens, 2009: 161-164).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 즉 질병 및 건강 문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과 소외 문제, 소득 상실에 따른 빈곤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겪게 되며 이러한 것들은 노인문제로 분류되면서 주요 사회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항의 중의 하나는 노인 여가이다. 노인들에게 있어 여가는 삶의 활력소를 충전시켜줌과 동시에 인생의 의미를 향상시켜주는 활동이다. 그러나 노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여가가

넘쳐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여가 자체가 즐거움이 아닌 무료함이라는 인식을 제기하고 또한 노인들에게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김동배, 2000).

노년기 여가활동은 젊은 세대들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 한다. 노년기 여가활동은 일을 멈추고 일정기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자칫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의 연속이 되기 쉽다.

그래서 노인 여가활동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들은 노년기의 여가활동이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고독감 해소(송지준 외, 2008), 자기존중과 자아정체성 유지(김양래, 2005; 이경원 외, 2005), 생활만족도 향상(박성자, 2006)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가활동은 노년기에 촉발되는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노후의 적응은 물론 일상의 무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임효택 외, 2005).

노인 인구에 대한 관심과 노후 생활에 있어 여가활동의 중요성 인식은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 및 실태 조사(문제경, 2006), 노인 여가활동 유형 결정요인(임효택 외, 2005), 노인들의 여가활동 활성화 방안(박용범 외, 2003), 노인 여가 프로그램(김한희, 2002), 노인의 여가교육(조명희, 2007), 노인 여가 정책연구(강정호 외, 2004), 노인 여가생활 만족도 요인(문희국, 2002) 등과 같이 다양해진 주제들에 대한 접근과 연구결과들의 양적 증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김윤혜 외, 2006)과 농촌지역(강현임, 2007; 김성희 외, 2008) 노인들의 여가, 혹은 여성 노인(강현임, 2007; 이경훈, 2007) 등과 같이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많은 부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동안 노인을 사회적 소외집

단으로 인식해 오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회집단으로서의 노인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하는 시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임효택 외, 2005).

점진적인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현저하게 연장되면서 노년의 의미 있는 삶과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를 이끌어내는 것은 개인적, 지역사회적,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된 만큼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노인 복지 혹은 노인의 여가활동 연구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복지분야의 정책적 특성은 지방의 지역적 특성과 상황 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지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중심의 특성과 욕구에 맞게 구성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노인 여가 관련 연구도 거시적 수준에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의 이동에 따라 지역 단위별 노인들의 여가활동 실태 혹은 여가 만족도 연구가 이루어진 곳으로는 대구광역시(최호경, 2000), 대전광역시(이영숙, 2008), 광주광역시(황명희, 2000), 경기도 김포시(문제경, 2006), 수원시(장연옥, 2001), 오산시(정명숙, 2004), 가평읍(이상선, 2004), 충남 청양군(전영훈, 2006), 충북 청주시(문영빈, 2003), 충주시(김옥태 외, 2002), 증평군(홍성열, 2006), 전남 여수시(문화국, 2003)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단위 중심의 노인 여가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단위의 노인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조사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여가 만족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담아내는 제주형 노인

여가정책, 더 나아가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정책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은 어떠한 유형의 여가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둘째 여가활동 참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가, 셋째 노인들의 여가활동 욕구와 여가활동 활성화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정책적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넷째 노인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등이 그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이 조사 연구는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모집단으로 하며, 표본은 지역별 65세 노인의 비율, 해당 지역 노인의 성비, 지역별 노인들의 연령 급간 비율을 고려한 비례적 층화표집(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을 통해 최종 추출하였다.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서 지역에 해당하는 우도면과 추자면에 거주하는 노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표본 추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43명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답변 내용이 부실하거나 분석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여섯 사례를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437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표집오차는 95%에서 신뢰수준  $\pm 1.4\%p$ 다.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분석에 사용된 범주는 <표 1>

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남	여	전체	
거주지역	제주시	동 지역	65(40.9)	108(38.8)	173(39.6)
		읍·면 지역	37(23.2)	72(25.9)	109(24.9)
		계	102(64.2)	180(64.7)	282(64.5)
	서귀포시	동 지역	27(17.0)	40(14.4)	67(15.3)
		읍·면 지역	30(18.9)	58(20.9)	88(20.1)
		계	57(35.8)	98(35.3)	155(35.5)
연령	65세 이상~70세 미만	54(34.0)	98(35.3)	152(34.8)	
	70세 이상~75세 미만	42(26.4)	67(24.1)	109(24.9)	
	75세 이상~80세 미만	32(20.1)	61(21.9)	93(21.3)	
	80세 이상	31(19.5)	52(18.7)	83(19.0)	
학력	무 학	37(23.3)	158(56.8)	195(44.6)	
	초등졸	60(37.7)	89(32.0)	149(34.1)	
	중 졸	36(22.6)	21(7.6)	57(13.0)	
	고 졸	22(13.8)	8(2.9)	30(6.9)	
	대졸 이상	4(2.5)	2(0.7)	6(1.4)	
경제적 수준	상	2(1.3)	6(2.2)	8(1.8)	
	중	106(66.7)	148(53.2)	254(58.1)	
	하	51(32.1)	124(44.6)	175(40.0)	
배우자	유	112(70.4)	132(47.5)	244(55.8)	
	무	47(29.6)	146(52.5)	193(44.2)	
건강 상태	매우 안 좋은 편	16(10.1)	42(15.1)	58(13.3)	
	조금 안 좋은 편	48(30.2)	127(45.7)	175(40.0)	
	보통	54(34.0)	58(20.9)	112(25.6)	
	좋은 편	30(18.9)	41(14.7)	71(16.2)	
	매우 좋은 편	11(6.9)	10(3.6)	21(4.8)	
전 체		159(36.4)	278(63.6)	437(100.0)	

이 논문에서는 거주 지역, 성,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등 7개 변인별로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 만족도 정도가 분석되었으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력 변인은 무학, 초등졸, 중졸, 고졸 이상으로, 그리고 경제적 수준 변인은 하, 중 이상으로 재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노인 여가활동과 관련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한 추가 문항들을 작성하였으며, 일차적으로 작성된 질문지는 예비 검사 및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쳤다. 최종 질문지는 배경 변인, 여가활동 유형 및 참여도, 여가 만족도, 여가활동 참여 이유, 여가활동 저해 요인, 여가활동 불만족 요인, 여가활동 욕구(정책적 요구 사항, 희망 여가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가활동의 유형은 여가시설, 여가활동에의 참여 동기, 일과 여가의 구분 기준 등 그 분류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들(김성순, 1990; 문영빈, 2003; 정명숙, 2004)을 참조하여, 여가활동 유형을 단순소일형, 대인교류형, 취미문화활동형, 학습활동형, 사회단체활동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진영 김남진, 2008을 참조). 여가활동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총 17개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전혀 안함’(1점), ‘가끔(월 1~2회)’, ‘보통(월3~4회)’, ‘자주(월5~6회)’, ‘거의 매일’(5점) 등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들은 활동의 어의적 의미, 이론적·경험적 논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가활동 유형별로 분류되었다(<표 2> 참조). 여가활동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Cronbach's  $\alpha$ 에 의해 추정한 결과 .741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노인 여가활동 유형 및 문항 내용

여가 유형	내 용
단순소일형	텔레비전(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보거나 컴퓨터를 한다.
	집에서 술 혹은 차 등을 마신다.
	집안일을 하거나 돕는다(손자, 손녀 돌보기 포함).
	텃밭을 가꾼다.
	낮잠을 자거나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
대인교류형	유원지나 공원에서 사람들과 어울린다.
	경로당, 노인정(복지관)을 찾는다.
	친구, 자녀 또는 친척집을 방문한다.
	아는 사람들과 바둑, 장기, 화투, 오락놀이를 한다.
	계모임, 동창회, 친목회 등 모임에 참석한다.
취미문화활동형	관광, 여행을 한다.
	음악, 미술, 영화 등을 감상하거나, 창작활동을 한다(문화활동).
	가벼운 운동이나 등산을 한다(운동).
	정원을 손질하거나 화초를 돌본다(취미활동).
학습활동형	노인대학, 교양강좌에 참여한다(학습활동).
사회단체활동형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한다(사회봉사활동).
	종교 활동을 한다.

여가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Beard와 Ragheb(1980)이 개발한 여가만족척도(LSS)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4개로 구성된 척도 문항들은 심리, 교육, 사회, 휴식, 신체, 시설환경 등 7개 요인의 만족도로 구분하였다(〈표 3〉 참조). 하위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5점) 등 Likert 5점 척도로 여가 만족도 정도를 측정하였다. 여가만족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63으로 매우 높았다.

여가활동 참여 이유, 여가활동 저해 요인, 여가활동 불만족 요인, 여

가활동 욕구(정책적 요구 사항, 희망 여가활동) 등을 측정하는 변인들은 명목적 특성을 갖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표 3〉 노인 여가활동 만족도 및 문항 내용

만족도 요인	내 용
심리적	내가 하고 있는 여가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여가활동은 나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여가활동은 나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내가 하는 여가활동은 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교육적	여가활동은 내 주변에 관련된 지식들을 얻게 해준다.
	여가활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가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다.
	여가활동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사회적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한다.
	내가 하는 여가활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내가 하는 여가활동은 정서발달에 기여한다.
	나는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한다.
휴식적	여가활동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한다.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나는 신체적으로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여가활동을 한다.
	나는 여가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한다.
신체적	여가활동은 신체적으로 보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체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가활동을 한다.
	나는 여가활동을 할 때 다양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한다.
	여가활동은 건강을 지켜준다.
시설환경적	내가 여가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신선하고 깨끗하다.
	내가 여가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흥미를 갖게 한다.
	내가 여가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가 보기에 좋다.
	내가 여가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잘 꾸며져 있다.

### 3. 조사 및 자료 분석

####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2008년 9월부터 2008년 12월에 걸쳐 진행됐는데, 조사원들은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 중 사회조사실습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3학년 학생 48명이었다. 이들은 실질적인 조사에 앞서 수업시간에 질문지의 내용과 체계에 대해 숙독하였으며, 면접요령 및 면접시 유의사항 등은 물론 각 문항별 질문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이수하였다. 지역별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치된 조사원들은 10월 6일서부터 10월 11일까지 표본으로 추출된 443명의 노인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 내용의 편집 과정을 거친 후, 각 조사원들은 자신의 조사한 질문지의 자료들을 입력하였으며 입력 오류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다.

#### 2) 자료의 분석

응답자들의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dows 1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첫째,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하위 문항들을 다섯 가지로 범주화시켜 형성하였으며 이들의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그 정도를 확인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배경변인과 여가활동 유형간의 T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여 집단간 평균의 차이를 살폈다.

둘째, 여가 만족도를 구성하고 있는 24개의 하위 문항을 만족도 유형별로 구분지어 총 여섯 개의 여가 만족도 하위 변인을 생성시켰다. 새로

이 생성된 여섯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노인들의 여가 만족도 정도를 제시하였으며, 배경변인과 여섯 변인들과의 T검증 그리고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집단간 평균의 차를 분석하였다.

셋째, 질문에 대해 순위별로 제시하도록 돼 있는 정책적 요구사항, 희망하는 여가활동, 여가 불만족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 종합적으로 순위를 나타낼 수 있는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병행했다. 즉 1순위와 2순위를 묻는 문항의 경우 각 순위에서 해당 응답이 차지하는 빈도를 알아보고, 이어 1순위에 2점, 2순위에는 1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주어 곱한 합을 전체 응답자 수로 나누어 얻은 평균점수를 통해 항목별 비중과 순위를 파악하였다.

### Ⅲ. 분석 결과

#### 1. 여가활동 유형

제주지역 노인들은 대부분 단순소일형(3.10점)에 해당하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음은 대인교류형(2.31점), 취미문화활동(1.83점), 사회단체활동(1.60점)의 유형의 순으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여가활동 유형은 학습활동형(1.35점)이었다(<표 4> 참조).

〈표 4〉 제주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 빈도 및 평균

여가활동 유형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단순소일형	436	3.10	0.78
대인교류형	434	2.31	0.77
취미문화활동형	433	1.83	0.71
사회단체활동형	437	1.60	0.75
학습활동형	437	1.35	0.78
전 체	432	2.04	0.51

여가활동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통해 참여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텔레비전(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보거나 컴퓨터를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28점). 그리고 다음은 ‘집에서 술 혹은 차 등을 마신다.’(3.11점), ‘집안일을 하거나 돕는다.’(3.02점)의 순이었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노인들은 대부분 단순소일형에 속하는 활동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음악, 미술, 영화 등을 감상하거나 창작활동을 한다.’(1.29점)고 답한 경우가 가장 적었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역시 1.32점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인교류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활동들 중에서는 ‘경로당, 노인정(복지관)을 찾는다.’(2.92점)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친구, 자녀 또는 친척집을 방문한다.’(2.43점), ‘유원지나 공원에서 사람들과 어울린다.’(2.22점)의 순이었다. 취미문화활동 중에서는 ‘가벼운 운동이나 등산을 한다.’(2.44점), ‘정원을 손질하거나 화초를 돌본다.’(2.16점)의 순이었으며, 학습활동형에 해당하는 여가활동을 한다고 답한 노인의 평균은 1.35점으로 이는 전체 항목 순위 중 15위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활동형 중에서는 사회봉사활동보다는 종교활동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여가활동 유형의 평균 차이

배경변인	여가유형	단순소일형	대인 교류형	취미문화 활동형	학습활동형	사회단체 활동형	전체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3.01	2.43	1.90	1.38	1.69	2.08
	제주시 읍면지역	3.08	2.23	1.74	1.26	1.50	1.96
	서귀포시 동지역	3.49	2.38	1.96	1.42	1.72	2.19
	서귀포시 읍면지역	3.02	2.14	1.74	1.39	1.46	1.94
	F값	6.833***	3.247*	2.259	.793	3.152*	4.246***
	제주시	3.04	2.35	1.84	1.33	1.62	2.03
	서귀포시	3.22	2.25	1.83	1.40	1.57	2.05
T값	-2.372*	1.382	.099	-.892	.583	.149	
성	남자	3.05	2.58	1.96	1.48	1.58	2.12
	여자	3.13	2.16	1.76	1.28	1.62	1.99
	T값	-1.034	5.441***	2.767**	2.621**	-.442	2.666**
연령	65~69	3.22	2.42	1.98	1.43	1.70	2.14
	70~74	3.15	2.42	1.88	1.36	1.72	2.10
	75~79	3.03	2.31	1.80	1.37	1.52	2.00
	80세 이상	2.91	2.00	1.55	1.19	1.36	1.80
	F값	3.092*	6.151***	6.919***	1.703	5.141**	9.021***
학력	무학	3.01	2.03	1.58	1.19	1.38	1.84
	초등졸	3.11	2.43	1.86	1.26	1.63	2.05
	중졸	3.25	2.68	2.19	1.71	1.89	2.34
	고졸 이상	3.34	2.78	2.53	2.05	2.23	2.58
	F값	2.548	20.426***	29.668***	19.357***	18.796***	37.535***
경제적 수준	하	3.06	2.20	1.59	1.22	1.47	1.90
	중 이상	3.13	2.39	2.00	1.44	1.69	2.13
	T값	-1.028	-2.554*	-6.104***	-2.886**	-2.993**	20.012***
배우자	유	3.18	2.43	2.00	1.43	1.73	2.15
	무	3.01	2.16	1.62	1.26	1.45	1.90
	T값	2.230*	3.655***	5.593***	2.270*	3.924***	26.741***
건강 상태	매우 안 좋음	2.82	1.96	1.53	1.31	1.33	1.76
	조금 안 좋음	3.15	2.17	1.71	1.23	1.53	1.95
	보통	2.99	2.46	1.91	1.43	1.62	2.08
	좋음	3.32	2.57	2.15	1.51	1.84	2.27
	매우 좋음	3.31	2.87	2.25	1.62	2.10	2.41
	F값	4.495**	10.799***	10.281***	2.716*	6.554***	12.127***

\*  $p < .05$ , \*\*  $p < .01$ , \*\*\*  $p < .00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의 평균 차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즉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으로 거주 지역을 양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여가활동 유형의 참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 개 지역별(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로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을 살펴 본 결과, 모든 지역의 노인들이 단순소일형, 대인교류형, 취미문화활동형, 사회단체활동형, 학습활동형의 순서로 참여하고 있음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각 유형별 활동 특성을 보면 대인교류형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참여도가 2.43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단순소일형, 취미문화활동형, 학습형, 사회단체활동형에서는 여타 지역 노인들보다 서귀포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참여 정도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 개의 행정구역(제주시, 서귀포시)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단순소일형 여가활동 유형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귀포시의 평균이 높았을 뿐, 학습활동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에 있어서는 제주시 거주 노인들의 참여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에 따른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의 평균 차이에 있어, 여자 노인들의 경우는 단순소일형과 사회단체활동형에서 남자 노인들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여자 노인들(1.99점)보다는 남자 노인들(2.21점)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더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인교류형의 경우 여자 노인(2.16점)보다는 남자 노인(2.58점)의 참여도가 더 높았으며, 취미문화활동형 여가활동 또한 남자 노인들(1.96점)이 여자 노인들(1.76점)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학습활동형 여

가활동에서도 여자들(1.28점)보다는 남자들의 참여도(1.48점)가 높았다.

연령의 증가와 여가활동 참여도는 서로 반비례하고 있었으며, 학습활동형을 제외한 단순소일형, 대인교류형, 취미문화활동형, 사회단체활동형 등에서 모두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의 참여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소일형의 경우,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도도 증가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외의 대인교류형, 취미문화활동형, 학습활동형, 사회단체활동형에 있어서는 모두 학력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역시 높아서, 경제적 수준이 ‘중’ 혹은 ‘상’ 정도라고 답한 응답자 집단의 여가활동 참여도 평균은 2.13점으로 ‘하’에 속하는 집단의 평균 1.90점보다 높았다. 이와 같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모든 여가활동 유형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단순소일형을 제외한 대인교류형, 취미문화활동형, 학습활동형, 사회단체활동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경우(1.90점)보다는 있는 경우(2.15점)의 여가 참여도가 더 높았다. 단순소일형, 대인교류형, 취미문화활동형, 학습활동형, 사회단체활동형 모두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았으며, 모든 여가활동 유형에 있어 나타나는 두 집단간의 평균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건강 상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평균점수를 보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인식할수록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도 역시 증가하였으며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별 평균의 차이 모두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 2. 여가 만족도

여가 만족도는 개인이 선택하여 참여한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나 인지의 수준을 의미하는데, 조사대상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느끼는 만족도 수준은 5점 만점 중 평균 3.09점으로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여가만족 요인별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여가 만족 요인별 빈도 및 평균

여가만족 요인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요인	437	2.88	0.83
교육적 요인	435	3.03	0.77
사회적 요인	436	3.17	0.86
휴식적 요인	437	3.37	0.78
신체적 요인	437	3.13	0.83
시설환경적 요인	437	2.93	0.75
전 체	434	3.09	0.72

즉 휴식적 요인의 평균이 3.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사회적 요인(3.17점), 신체적 요인(3.13점), 교육적 요인(3.03점)의 순이었으며, 이상의 요인들은 모두 평균 3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반면 시설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은 평균 3점미만의 점수를 보이고 있어 만족의 정도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여가 만족도 평균 차이

배경변인		여가만족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신체적	시설환경적	전체
거주 지역	제주시 동지역	2.91	3.13	3.22	3.46	3.20	2.94	3.14
	제주시 읍면지역	3.00	3.12	3.21	3.44	3.18	3.04	3.17
	서귀포시 동지역	3.11	3.22	3.47	3.57	3.36	3.23	3.32
	서귀포시 읍면지역	2.54	2.62	2.85	2.99	2.76	2.57	2.72
	F값	7.751***	11.590***	7.208***	9.836***	8.201***	12.021***	11.588***
	제주시	2.94	3.13	3.21	3.45	3.19	2.98	3.16
	서귀포시	2.79	2.88	3.12	3.25	3.02	2.85	2.98
T값	1.888	3.173**	1.082	2.649**	2.059*	1.641	2.431*	
성	남자	3.06	3.17	3.32	3.51	3.32	3.07	3.24
	여자	2.79	2.96	3.10	3.30	3.02	2.86	3.01
	T값	3.320**	2.751**	2.604*	2.733**	3.760***	2.930**	3.380**
연령	65~69	3.02	3.15	3.30	3.48	3.29	3.01	3.21
	70~74	2.98	3.17	3.30	3.49	3.20	3.05	3.21
	75~79	2.83	2.92	3.11	3.31	3.09	2.86	3.03
	80세 이상	2.59	2.80	2.88	3.13	2.80	2.72	2.83
	F값	5.546**	5.451**	5.326**	4.774**	6.811***	4.026**	6.162***
학력	무학	2.63	2.89	3.37	3.50	3.47	2.90	3.13
	초등졸	2.97	2.82	3.04	3.58	3.58	3.22	2.77
	중졸	3.25	3.12	2.97	3.18	3.63	3.43	2.99
	고졸 이상	3.38	3.35	3.23	3.20	3.38	3.54	3.14
	F값	15.898***	11.678***	9.817***	6.589***	11.853***	7.661***	12.306***
경제적 수준	하	2.69	2.85	2.98	3.24	2.97	2.84	2.94
	중 이상	3.02	3.16	3.31	3.47	3.24	3.00	3.20
	T값	-4.216***	-4.176***	-3.920***	-2.924**	-3.215**	-2.209*	-3.767***
배우 자	유	3.04	3.15	3.31	3.49	3.31	3.04	3.23
	무	2.70	2.89	3.01	3.23	2.90	2.81	2.93
	T값	4.437***	3.459**	3.745***	3.439**	5.226***	3.184**	4.278***
건강 상태	매우 안 좋음	2.30	2.59	2.70	3.00	2.59	2.58	2.64
	조금 안 좋음	2.76	2.87	2.99	3.28	3.03	2.83	2.97
	보통	2.98	3.18	3.29	3.44	3.21	3.00	3.18
	좋음	3.33	3.41	3.71	3.71	3.53	3.20	3.48
	매우 좋음	3.55	3.61	3.70	3.83	3.74	3.45	3.65
	F값	19.533***	16.701***	18.035***	10.144***	15.729***	9.725***	17.872***

\*  $p < .05$ , \*\*  $p < .01$ , \*\*\*  $p < .001$

<표 7>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여가 만족도의 평균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전체적인 여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귀포시 동지역(3.32점)이었으며 다음은 제주시 읍면지역(3.17점)이었다. 반면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여가 만족도는 2.72점으로 최하위였는데, 이와 같이 읍면·동별 여가 만족도 평균의 차이는 여섯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시 지역간 비교에서는 제주시(3.16점)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만족도가 서귀포시(2.98점)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 만족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역간 여가 만족도의 차이는 심리적, 사회적, 시설환경적 요인을 제외한 교육적 요인, 휴식적 요인 그리고 신체적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에 따른 여가 만족도는 남자의 경우 휴식적 요인(3.45점)이 가장 높았고, 심리적 요인의 평균 점수는 3.06점으로 가장 낮았다. 여자 노인들의 경우도 만족도 순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들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휴식적 요인(3.32점)이 가장 높고 심리적 요인(2.79점)이 가장 낮았다. 전반적인 여가 만족도는 물론 심리, 교육, 사회, 휴식, 신체, 시설환경 등 하위 요인 모두에서 남녀간의 평균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 만족도는 점차 낮아졌다. 65세 이상~70세 미만 노인들의 경우는 심리적(3.02점), 신체적(3.29점) 요인에서, 70세 이상~75세 미만 노인 집단은 교육적(3.17점), 휴식적(3.49점), 시설환경적(3.05점) 요인에서 다른 연령대의 노인 집단들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사회적 요인의 경우는 65세 이상~70세 미만, 70세 이상~75세 미만 노인 집단의 만족도 평균이 3.30점으로 동일했다. 최고령층에 해당하는 80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다른 연령의 노인층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요인은 없었으나 휴식적 요인의 만족도가 3.1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회적 요인(2.88점)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일했다.

노인들의 학력 수준에 따른 여가 만족도에 있어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집단은 고졸 이상의 노인 집단으로 3.14점이었다. 다음은 무학(3.13점), 중졸(2.99점), 초등졸(2.77점)의 순이었다. 고졸 이상 노인의 경우는 심리적(3.38점), 교육적(3.35점), 시설환경적(3.54점) 요인에서, 중졸 노인들은 신체적 요인(3.63점)에서, 초등졸 노인들은 휴식적 요인(3.58점)에서, 무학 노인들은 사회적 요인(3.37점)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여가 만족도는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 여가 만족도 요인 중 휴식적 요인(3.24점)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심리적 요인(2.69점)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경제적 수준이 '중 이상'인 경우는 휴식적 요인(3.47점)이 가장 높았으며, 시설환경적 요인(3.00점)이 가장 낮았다. 모든 요인별 만족도에서 경제적 수준이 중 이상인 집단이 하에 속하는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는데, 집단간 평균차에 있어 심리, 교육, 사회, 휴식, 신체, 시설환경적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 전체에서도 경제적 수준이 중 이상인 노인 집단의 만족도(3.20점)가 하 집단의 만족도(2.94점)보다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여가 만족도는 3.23점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여가 만족도 평균 2.93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은 휴식적 요인(3.49점)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심리적·시설환경적(3.04점) 요인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은 휴식적 요인의 만족도가 3.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요인의 만족도는 2.70점으로 가장 낮았다.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 있어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신체

적, 시설환경적 요인 등 전 영역에 걸쳐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만족도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다.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른 여가 만족도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식할수록 여가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자신의 건강을 매우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노인들의 여가 만족도가 3.6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좋은 편(3.48점), 보통(3.18점), 조금 안 좋은 편(2.97점), 매우 안 좋은 편(2.64점)의 순이었다. 사회적 요인에서만 자신의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인식한 노인들의 만족도가 3.71점으로, 매우 좋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노인들의 만족도와 비슷할 뿐 그 외의 요인들 모두에서 건강 상태와 만족도는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주관적 건강 상태에 따른 요인별 만족도는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신체적, 시설환경적 요인 등 전 영역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여가활동 욕구

노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여가활동에의 참여를 저해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직면하게 된다. 우선, 여가활동 이유에 대해 노인 응답자 437명 중 40.0%(175명)가 ‘단순히 지루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4.0%(105명)는 ‘건강을 위해’ 여가활동을 하며, 21.3%(93명)는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가활동을 한다고 답했다. 그밖에 ‘남들이 하니깐’, ‘평상시 하고 싶었던 것들이라서’라는 응답들이 14.7%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성, 연령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력, 경제 수

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가활동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음’(30.4%)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이어 ‘경제적인 부담’(16.7%), ‘시간이 없음’(12.8%), ‘귀찮음’(11.7%), ‘여가활동 시설 및 공간의 부족’(11.7%),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름’(11.4%), ‘기타’(5.3%) 등의 이유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여가활동 저해 이유에 대한 거주 지역별 반응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성, 연령, 학력, 경제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등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했다.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여가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표 8>은 이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어르신께서는 현재 하고 계시는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이 가장 불만족스럽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통해 노인들의 여가활동 중에 느끼는 불만족 사항을 순위별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1순위에서는 ‘여가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34.6%)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다음은 ‘여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불충분하다.’(17.9%), ‘여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17.9%)의 순이었다. 그리고 2순위에서는 ‘여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불충분하다.’(22.0%), ‘여가를 즐길 장소나 시설이 부족하다.’(18.7%), ‘여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15.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 묶어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평균점수를 보면, 노인들은 ‘여가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 0.78점으로 노인들의 여가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불충분하다.’가 0.57점으로 다음이었으며, ‘여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0.51점)의 순이었다. 프로그램의 질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다.’(0.15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의 질이 낮다.’(0.01점) 등은 노인들의 여가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했다.

〈표 8〉 여가활동 관련 불만족 요인

(단위: 명, %, 점수)

불만족 요인	순위			평균 (순위)
	1순위	2순위		
여가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	151(34.6)	40(9.3)		0.78(1)
여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불충분하다.	78(17.9)	94(22.0)		0.57(2)
여가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충분하지 않다.	78(17.9)	67(15.7)		0.51(3)
여가를 즐길 장소나 시설이 부족하다.	54(12.4)	80(18.7)		0.43(4)
장소나 시설은 있으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20(4.6)	39(9.1)		0.18(5)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다.	17(3.9)	35(8.2)		0.15(8)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교통편이 불편하다.	17(3.9)	41(9.6)		0.17(6)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의 질이 낮다.	-	4(0.9)		0.01(9)
기타	21(4.8)	28(6.4)		0.16(7)
계	436(100.0)	428(100.0)		

그렇다면, 향후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된다면 노인들은 어떠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는가? 제시된 활동들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가지만 지적해달라는 질문을 통해 노인들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을 정리해보면, 1순위에는 ‘운동이나 건강관리’(44.3%), ‘여행, 관광, 등산, 낚시 등’(19.5%)의 순으로, 2순위는 ‘노래나 오락’(25.1%), ‘운동이나 건강

관리'(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에 의한 순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영역은 '운동이나 건강관리'와 관련된 것(1.09점)이었으며 다음은 '여행, 관광, 등산, 낚시 등'의 활동(0.56점), '노래나 오락' 등의 활동(0.55점), '사교모임'에의 참여(0.31점) 순이었다. 그러나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0.01점)에의 참여 욕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9> 참조).

〈표 9〉 노인들이 희망하는 여가활동

(단위: 명, %, 점수)

항목	순위	1순위	2순위	평균 (순위)
컴퓨터, 영어 등의 교육 강좌		25(5.7)	13(3.1)	0.14(5)
운동이나 건강관리		193(44.3)	90(21.1)	1.09(1)
노래나 오락		68(15.6)	107(25.1)	0.55(3)
여행, 관광, 등산, 낚시 등		85(19.5)	77(18.1)	0.56(2)
사교모임(실버 미팅, 댄싱, 친목계)		31(7.1)	77(18.1)	0.31(4)
전통문화체험(사물놀이, 창, 시조 등)		12(2.8)	35(8.2)	0.13(6)
기술교육(편물, 봉제, 종이접기 등)		9(2.1)	13(3.1)	0.07(8)
종교활동, 봉사활동		2(0.5)	2(0.5)	0.01(9)
기타		11(2.5)	12(2.8)	0.08(7)
계		436(100.0)	426(100.0)	

위와 같은 노인들이 희망하는 여가활동 영역은 여가활동 유형별로도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운동이나 건강관리', '노래나 오락', '여행, 관광, 등산, 낚시 등', '전통문화체험'의 항목은 취미문화형으로, 그리고 '사교모임'은 대인교류형으로, '컴퓨터, 영어 등의 교육 강좌'와 '기술교육'은 학습활동형, '종교활동, 봉사활동'은 사회단체활동형으로 분류된다. 점수 순으로 종합하여 보면, 취미문화활동형에의 참여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대인교류형, 학습활동형, 기타, 사회단체활동형의 순이었다. 점수 상으로 봤을 때 취미문화활동형에 대한 욕구가 거의 절대적 수치였다.

여가활동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표 10> 참조).

<표 10> 노인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요구사항

(단위: 명, %, 점수)

정책적 요구사항	순위				평균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지역별 노인 복지시설 개선, 확충	86(19.7)	58(13.3)	67(15.5)	1.00(3)	
노인 여가 정보 제공	49(11.2)	55(12.6)	54(12.5)	0.71(4)	
이동의 편의성 제공	27(6.2)	51(11.7)	58(13.4)	0.55(5)	
노인들의 건강 상태 점검 병행	103(23.6)	85(19.5)	65(15.0)	1.24(1)	
비용의 일부 부담	103(23.6)	88(20.2)	54(12.5)	1.23(2)	
여가활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8(1.8)	11(2.5)	14(3.2)	0.13(9)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보급, 운영	14(3.2)	18(4.1)	20(4.6)	0.22(7)	
연령에 적합한 여가 프로그램 보급, 운영	18(4.1)	38(8.7)	37(8.5)	0.38(6)	
성별 특성에 절절한 여가 프로그램 보급, 운영	5(1.1)	1(0.2)	10(2.3)	0.06(13)	
지역별로 정기적인 여가 프로그램 보급, 운영	9(2.1)	18(4.1)	17(3.9)	0.18(8)	
노인 여가 프로그램 전문 강사 양성	5(1.1)	4(0.9)	14(3.2)	0.08(10)	
정기적인 노인 여가 실태 파악 및 정책적 반영	3(0.7)	5(1.1)	18(4.2)	0.08(10)	
기타	7(1.6)	3(0.7)	5(1.2)	0.07(12)	
계	437(100.0)	435(100.0)	433(100.0)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첫 번째 순위에서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 점검 병행’과 ‘비용의 일부 부담’(23.6%), 두 번째 순위에서는 ‘비용의 일부 부담’(20.2%) 그리고 세 번째 순위에서는 ‘지역별 노인 복지시설

개선, 확충'(15.5%)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이상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 결과를 평균점수를 통해 살펴보면, 노인들은 자신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 점검 병행'(1.24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관련한 '비용의 일부 부담'(1.23점), '지역별 노인 복지시설 개선, 확충'(1.00점), '노인 여가 정보 제공'(0.71점), '이동의 편의성 제공'(0.5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기적인 노인 여가 실태 파악 및 정책적 반영'(0.08점)과 '성별 특성에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 보급, 운영'(0.06점)이 요구된다고 답한 노인은 거의 없었다.

####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 논문은 제주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 및 만족도 그리고 여가활동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제주형 노인 여가 및 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실태를 결론짓고, 이를 정책적 함의와 연결지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는 거주 지역, 성, 연령, 학력, 경제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등이며, 단순소일형 여가활동에의 참여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노인들은 자신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남은 시간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텔레비전(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보면서 보내고 있다. 그러나 향후 건강상 그리고 경제적, 시간적 여건이 개

선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단순소일형에 해당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노인들은 여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 가능한 단순·단순소일형의 참여 정도가 높은 것이다. 실제로 여가활동과 관련한 불만족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노인들은 여가활동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생업에 헌신하다 노년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노인들은 ‘노는 방법’이나 ‘여가를 즐기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노인들에게 여가교육을 통해 여가 지식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면 다양한 유형의 여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여가교육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가교육은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자신에게 적절한 여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고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한 여가활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교육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여가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들을 집 안에서 실외로 그리고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노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그 운영을 다각화함으로써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가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노인 관련 복지기관 프로그램 및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보편적 수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지역공동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가 자원에 대한 수집, 인프라의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노인과 관련된 시설치 시설과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노인의 건강, 여가, 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문제를 풀어가는 시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즉 경로당 및 노인회관, 마을회관, 노인대학, 노인교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기관 등 각종의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의 역할을 분석하여 각기의 기능을 차별적으로 배분함과 동시에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짓는 통합적 전략으로 가는 것이 기능과 예산의 중복성을 최대한 줄이고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제주지역 노인들의 여가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거주 지역, 성,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에 따라 만족도는 달라진다. 휴식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요인 등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나, 시설환경적 그리고 심리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들이 여가를 통해 삶과 노동으로부터의 긴장해소, 사회적 관계의 형성, 신체적 활동을 통한 건강유지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는 높은 반면 자아성취감, 여가활동을 위한 물리적 환경, 지적 육구의 충족과 관련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함을 뜻한다.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많은 부분 위축되고 신체적으로도 무기력해지는 연령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어떤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표현하고 그를 통해 자아성취감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취 경험은 여가활동을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즐거움, 소속감,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아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가 가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희망하는 정도가 높은 여가활동 중 노래나 오락의 경우 단순히 가르쳐 주는데 한정되기보다는 특정 노래대회를 목표로 연습을 하는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노인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예를 들어 컴퓨터 강좌는 물론 문해교육, 휴대폰 사용법 교육, 정치·경제·시사 교육, 농한기를 이용한 부업관련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주 지역별 여가활동 참여도와 만족도를 관련지어 살펴보면, 제주시 지역 전체와 서귀포시 지역 전체 간에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서귀포시 동지역 거주 노인들이 가장 높고 다음은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순이다. 또한 여가활동 유형에 있어서 서귀포시 동지역은 단순소일형의 참여 비율이 높는데 반면,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는 대인교류형과 취미문화활동형에의 참여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다. 여가 만족도에 있어서는 서귀포시 읍면지역,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지역간 여가활동 참여도 및 만족도의 차이는 지역별 특성 차이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노인 여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은 획일적인 것보다는 지역에 맞는 다양성을 반영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동지역인지 읍면지역인지에 따라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주 지역별 노인들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여가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시기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구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셋째, 제주지역 노인들은 운동이나 건강과 관련된 여가활동에의 참여를 가장 희망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여가활동과 함께 노인들의 건강 상태 점검서비스를 병행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건강관리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원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그 대안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대학의 관련 전공 학생들을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보건의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대학생을 활용한 보건의료봉사활동 활성화는 일종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이동성이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인근 보건소 및 의원 등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노인들로 하여금 질병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더욱 건강한 노년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요컨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여가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본 조사연구 결과가 제공하는 함의는 여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여가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 노인관련 기존 시설과 프로그램의 유기적 조정 및 연계, 노인특성이 반영된 여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대한 성찰과 평가에 기반한 정책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강정호 · 박정희(2004). 「고령화 사회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5(6), 117-128.
- 강현임(2007). 「농촌여성노인의 여가생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동배(2000). 「노인 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 『연세행정논총』 25, 137-160.
- 김성순(1990).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홍익제.
- 김성희 · 이경철(2008). 「농촌노인의 신체적 여가활동 참여가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7(1), 247-254.
- 김양례(2005).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자이존중감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44(6), 183-192.
- 김옥태 · 정용승(2002). 「청주시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호서문화논총』 16, 97-92.
- 김윤혜 · 하태열 · 이복희(2006). 「수도권 거주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무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 식생활 실태 및 영양상태 비교 분석」,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5(4), 422-429.
- 김진영(2006). 『제주사회와 복지』,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진영 · 김남진(2008). 「제주지역 노인의 여가활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2008 연구보고서.
- 김한희(2002). 「노인 여가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문영빈(2003).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와 삶의 만족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문제경(2006).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문희국(2003). 「노인의 여가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박성자(2006). 「도시근교 농촌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박용범 · 김학신(2003). 「노인 여가활동의 발전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

695-706.

- 송지춘·엄인숙(2008). 「중년과 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우울, 고독감간의 관계」, 『관광연구』 23(1), 43-62.
- 이경원·김인범·임낙철·장용주(2005). 「노인의 신체적 여가활동 참가가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6(6), 205-212.
- 이경훈(2007). 「농촌지역 여성노인들의 여가문화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0(1), 13-27.
- 이상선(2004).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 이영숙(2008). 「노인의 여가활동실태 및 여가프로그램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 임효택·송채훈(2005).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여가활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6(5), 303-314.
- 장연옥(2001). 「현대노인의 여가활동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영훈(2006). 「농촌 노인들의 여가생활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 정명숙(2004). 「노인의 여가참여정도와 여가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조명희(2007). 「노년기 여가활동: 노년기 여가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209-222.
- 최호경(2000).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
- 통계청(2008). 「시도별 장애인구 추계」.
-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2009). 「제주고령자통계」.
- 홍성열(2006).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실태 및 욕구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 황명희(2000). 「광주시 노인의 여가태도와 여가참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Beard, J. G., & Ragheb, N.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3.
- Giddens, A.(2009). *Sociology*(5th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김미숙 외,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Abstract

The Study on the Leisure Activity Type and Satisfaction Degree  
of the Aged in Jeju

Kim, Jin-Young\* · Kim, Nam-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eisure activity type and leisure satisfaction degree of the aged in Jeju. The subjects totalled 437 person who participating in this research. The age of subjects ranged from 65 to above 80. The questionnaire for leisure satisfaction investigation had been developed by Beard & Ragheb(1980) and leisure activities type investigation had been developed by Moon(2003) and Jeong(2004). Thi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direct interview and analyzed by SPSS Win 12.0 program for statistical analysis.

Three conclusion were drawn, based on the research and procedure.

First, the aged spent leisure time most in watching TV and listening Radio. All these activities are involved in pastime type leisure activity.

Second, degree of leisure satisfaction was higher than mean, the highest satisfaction factor was rest and psychological factor was lowest.

Third, the subjects wanted to participate in sports or related on health and demanded for double operation on leisure activity and health inspection.

Finally, the research results require development of the program of

---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Kaya University

leisure education, offer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related to leisure, organic coordination of facilities and program on the aged, and building the leisure program.

**Key Words**

leisure for the aged, leisure activity type, leisure satisfaction  
webmaster@jejunu.ac.kr <webmaster@jejunu.ac.kr>

**교신 : 김진영**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E-mail : jykim@jejunu.ac.kr 전화 : 064-754-2787)

논문투고일 2009. 06. 30.

심사완료일 2009. 08. 15.

게재확정일 2009. 08. 17.